

○○ 회원사 동정

大韓電線



스테인리스 생산 확대

大韓電線(株)(代表: 兪彩濬)가 안산공장을 증설, 스테인리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한다.

최근 대한전선은 총 5백억원을 투자해 안산공장에 냉간압연기 1기를 새로 설치, 다음달 1일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스테인리스 생산량은 냉간압연기 증설로 연간 12만t에서 18만t으로 늘어나 삼미특수강에 이어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또 초극박판 생산을 위해 하반기중 3백억원짜리 초극박판전용압연기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극박판은 두께가 0.01mm 이하의 얇은 스테인리스판으로 반도체소재인 리드프레임, 고선명TV용 새도마스크 등 첨단전자 제품의 핵심부품이다. 회사측은 이 제품 생산으로 연간 3백억원 정도의 수입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5월 삼양금속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압연사업부문을 양수받고 활발한 신규투자를 펼쳐 올해에는 이 분야에서 17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올들어 전선업의 호황으로 회사전체 매출이 지난해 7천억원보다 크게 늘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新亞電氣工業



ISO 9001 인증획득

新亞電氣工業(株)(대표: 조준영)는 30년동안 축

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배전계통 전력기기 선도기업으로서 최근 동사에서 생산중인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등 전문분야에 대하여 DNV로부터 ISO 9001의 인증을 획득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품질관리 시스템에 국제적 품질보증 시스템인 ISO 9001을 접목시켜 신아 고유의 품질시스템을 구축, 공인된 제도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음으로써 동사가 시행하고 있는 품질보증시스템의 질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동사의 인증심사를 주관했던 DNV는 1864년 노르웨이에서 설립된 국제적인 조직으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각국의 정부기관의 인증기관으로 이번 동사의 인증획득은 우리의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이기도 하며 동시에 수출확대 등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ISO 9001 인증획득은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라는 각오아래 그동안 구축한 품질보증시스템이 품질경영의 혁신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그리고 철저히 시행해 나갈 것이며 환경경영, 안전시스템 등에 대한 인증도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LG產電



국제화상회의를 통한 R&D 정보교류 시도

LG產電(株)(代表: 李喜鍾)은 지난달 12일 여의도 LG트윈빌딩에서 국내 최초로 국내 ISDN망을 이용하여 일본 미쯔비시전기와 R&D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화상회의를 가졌다.

미쯔비시전기와 국제화상회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다거점화되는 기술개발 체제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LG산전의 기술개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기술선진국인 일본과의 R&D 협력을 위한 채널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국제화상회의에서 LG산전과 미쯔비시전기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동시 협조개발 체제의 구축, 효율적 R&D 운영체제 연구 등 양사간 R&D 분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 ISDN망을 이용한 국제화상회의는 한국통신의 자체시험 성공 이후 국내 ISDN가입자로는 LG산전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첨단통신기술을 통한 국내 기업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産電은 국내 전동공구업체로는 처음으로 디자인·색상 등 제품이미지를 동일화시키는 PI(Product Identity)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94년 美國의 세계적 디자인 회사인 FITCH社에 LG산전 고유의 디자인 및 색상개발과 고품질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PI용역을 의뢰, 최근 정밀하고(Precise), 인간공학적이며(Human Extention), 튼튼한(Rugged) 제품이미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기본 디자인案을 확정된 LG산전은 향후 출시되는 신제품은 물론 모든 생산제품에 '97년까지 PI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95년에는 LG산전의 4개 전략품목인 Hammer Drill, 고속절단기, 100mm 디스크 그라인더, 충전드릴에 PI를 적용하는데, Hammer Drill과 고속절단기는 이미 시제품과 포장디자인이 제작되어 이달초에 출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두제품은 현재 디자인 Mock-up(제품 모형) 개발이 끝난 상태로 연말까지 제품 개발이 완료된다.

또한 '96년에는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과 그라인더·드릴·절단기 같은 산업용 전동공구類에, '97년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동공구類에 적용, LG산전이 생산하는 총 100여종의 전동공구 PI작업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PI에 적용할 색상계획에 있어서는 튼튼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Metallic Grey를 기본색상으로 하고 스위치나 노브(Knob) 등 본체 이외의 부속물에는 Point Color로 Blue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현장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동공구와 소형 전동공구에는 사용자들의 특성과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다른 색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97년 PI작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LG산전은 세계 유수의 전동공구업체인 B&D의 “검은색의 세련

된 최고의 제품”, MAKITA의 “높은 기술의 안전한 제품”과 같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LG산전 고유의 제품이미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높아진 지명도와 제품 이미지 향상을 통해 수출 및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光明電機



판금전문 2공장 건설

(株)光明電機(代表:張淳明)가 사회공단에 제2공장을 건설한다.

동사는 40억원을 투입, 시화공단 2천5백평부지에 건평 7백여평 규모의 판금전문공장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 공장은 독일의 베렌社로부터 들여올 판금자동화설비를 갖추어 철판가공능력이 월 2백50t에서 월 5백t으로 증가돼 품질향상과 함께 수배전반 MCC(모터컨트롤센터)가스절연개폐장치 계전기 및 제어반 등 각종 중전기부품의 생산능력이 배로 늘어나게 됐다.

광명전기는 시화공단의 제2공장건설로 기존 반월 공장은 배선공장으로, 제2공장은 판금자동화공장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동사는 올 2월부터는 울진원자력발전소 3호기에 수배전반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日本미쓰비시社에 수배전반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수출해온데 이어 최근 도시바社와 수배전반의 수출계약을 맺고 이달말 첫선적한다.

現代重工業



말레이시아 변전소 기자재 수주

現代重工業(株)(대표:김정국) 중전기사업본부는 말레이시아 275kV/132kV GIS 변전소 터키공사에 현대건설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 발주처인 말레이시아 전력청으로부터 확정 발주서를 접수했다.

현대중공업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및 페낭 지역의 2개 신설 변전소에 설치될 핵심기자재인 미화 4천만불 상당의 275kV 및 132kV GIS 240 MVA 변압기 및 Control & Protection Panel을 향후 15개월 이내에 설계, 제작, 완료하여 동 전력청에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는 지난 '83년부터 말레이시아 전력청에 275kV 240MVA 등 다수의 전력용 변압기를 공급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아 왔으며 금번 GIS 수주로 사우디 132kV GIS 공급에 이어 향후 본격적인 초고압 GIS의 해외 수출기반을 이룩하게 되었다.

한편, 현대중공업(주) 중전기사업본부는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에 소요될 전력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484Sets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영국의 HAWKER SIDDELEY, ELEQUIP 및 이태리의 EUDOSIA 등 6개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끝에 지난 3월 최종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최근 미화 3천만불에 계약체결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분할 납품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Power Control Unit는 지하수를 Pumping하는데 필요한 전력공급 및 제어장치로서 3.3kV MCC와 PLC Panel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 제품의 옥외 Housing 설비는 냉매를 이용하여 외부의 전원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Passive Cooling System을 적용한 최첨단 장비로서 리비아 사하라 사막의 악조건속에서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다.

LG電線



정보통신분야 강화

LG電線(株)(代表: 權攸久)는 정부의 통신사업 자유화 발표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의 민간 참여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이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통신케이블 생산 중심의 사업구조를 종합 정보통신사업 분야로 확대, 강화한다.

현재 정보통신부문의 매출 2000억원중 銅케이블

과 光케이블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구조를 오는 2000년에는 동케이블 20%, 광케이블 30% 등 케이블부문의 매출을 50% 이하로 낮추고 CATV, 무선동축시스템 같은 비전선부문의 매출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전선은 회사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문을 매년 13% 이상의 성장을 기록, 2000년에는 전체 매출의 25%인 4000억원을 달성해 이 분야의 비중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LG전선은 또 현재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정보통신사업 관련 시장 규모가 '98년 이후에는 10조원을 넘는 거대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되면 해외 선진 업체와의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통신선로 및 관련제품의 탄력 공급능력을 기반으로 공중통신 시스템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한편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G전선은 또 내수 및 수출시장이 감소하고 있는 銅통신케이블의 생산라인을 점차 축소하고 인원과 투자를 광케이블 생산라인에 집중하고 무선 동축시스템, 통합배선 시스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新韓電機工業



'95전기분야 품질분임조 최우수상 수상

新韓電機工業(株)(代表: 朴吉相)가 '95년도 전기분야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신한전기공업은 '93년도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도 은상을 수상한 경험으로 이번에 최우수상의 쾌거와 함께 날로 심해져가는 경쟁력속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길은 품질 고급화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정신으로 오늘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에 수상한 업체는 올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전국 품질 분임조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데 이날 대회에서는 이밖에도 동미전기공업, 신아전기공업, 국제전기, 대연전자, 삼진변압기가 우수상을, 대한트랜스, 삼성전기공업, 한양전기공업이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